ISSN 1975-9355

울산학연구

제 10 호



울산의 지역극장 '울산극장'의 역사와 문화적 의의 연구
울산 부평역촌 일원 건물지 배치 양상과 변천 연구
울산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UDI 울산학연구센터



chapter
03 울산의 조선후기 불교 조각 연구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홍은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선임연구원

Ⅰ. 머리말 134

Ⅱ. 울산 사찰 내 봉안된 조선 후기 불교 조각 136

Ⅲ. 울산의 조선후기 불교 조각의 제작 시기와
조각승 추론 152

Ⅳ. 맺음말 163

• 참고문헌 165

Ⅰ. 머리말

울산에 위치한 사찰 전각에는 여러 시대에 제작된 불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의 불상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6세기 말에 일어난 왜구의 침략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이는 울산의 사찰들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기간에 대부분 파괴된 후, 종전과 더불어 전각을 건립하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울산의 조선후기 불상은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이나 사적기(寺蹟記) 등을 통하여 조성 시기와 작가 등이 밝혀진 것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조선후기 불상 연구는 2000년 말에 17세기 후반에 전남 고흥 능가사에 거주하면서 호남과 영남을 돌아다니면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 색난 스님의 존재가 밝혀진 후,[1]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기년명(紀年銘) 불상을 중심으로 개별 조각승 활동과 계보 및 불상 양식을 연구하고 있다.[2] 문화재 지정 조사와 개금(改金) 등을 계기로 현재까지 조성발원문이 밝혀진 조선후기에 제작된 기년명 불상은 300점에 이르고, 17세기 초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대부분 제작되었다.[3] 이 시기 불상을 제작한 40여 명의 조각승은 활동과 계보 및 불상 양식이 연구되었다.[4]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울산 지역 불상의 제작 시기와 작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울산 사찰 내에 봉안된 조선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사찰 내에 남아있는 문헌을 바탕으로 불상이 봉안된 전각의 건립 시기와 양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조성 시기와 작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불상의 제작 시기 추정은 문헌에 언급되지 않은 울산 지역 사찰의 연혁을 복원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1) 최선일,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 14, 2000, pp.35-62.
2) 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조소』, 양사재, 2007.
3) 조선 후기 활동한 개별 조각승과 불상 양식에 관해서는 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8; 송은석,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 이희정, 「朝鮮後期 慶尙道地域 彫刻僧과 佛像」,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8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4) 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교조각 연구』, 세종, 2013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Ⅱ. 울산 사찰 내 봉안된 조선 후기 불교 조각

울산 지역에는 다양한 종단에 속한 많은 사찰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 가운데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을 봉안한 사찰은 10여 곳이고, 수량은 10건 15점에 달한다.

1. 석남사 대웅전 석조석가삼존불좌상

석남사 대웅전 수미단에 봉안된 불상은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상이 배치된 삼존상이다(도1). 본존의 높이는 125.5㎝, 무릎 폭이 90.5㎝인 조선후기 제작된 중대형 불상이다. 본존은 약간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로 결가부좌하고 있다(도2). 앞으로 숙인 머리는 나발(螺髮)이 촘촘하고, 육계(肉髻)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며, 머리 정상부에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와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가 있다. 방형의 각이진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 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콧날이 뾰족한 원통형이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오른손은 촉지인(觸地印)을, 왼손은 다리 위에 놓은 채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가락을 펼치고 있다. 바깥쪽에 걸친 대의(大衣)는 변형통견으로, 오른쪽 어깨에 대의 자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대의 자락은 세 가닥으로 접혀 팔꿈치와 복부(腹部)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 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 표현은 중앙에 수직으로 흘러내린 끝부분이 옷깃 같이 접혀 있고, 그 옆으로 낮고 넓적한 옷주름이 두 가닥 늘어져 있다. 가슴에 묶은 승각기는 상단에 5개의 앙련형(仰蓮形) 주름이 접혀 있다. 불상의 뒷모습은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도1. 석조석가삼존불좌상, 울주 석남사



도2. 석조여래좌상

본존 옆에 봉안된 보살상은 우측이 높이 99.5㎝, 좌측이 높이 109.5㎝로 약간 크기가 다르다(도3). 보살은 연화당초문(蓮花唐草文)이 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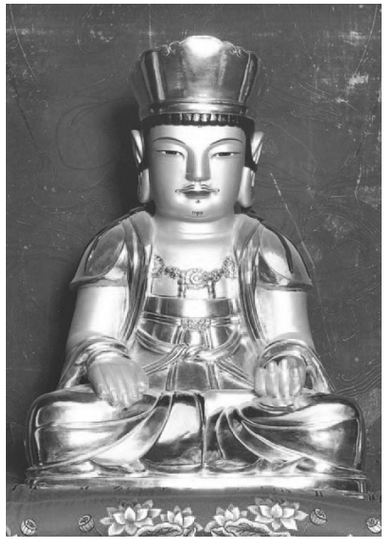


도3. 석조보살좌상

촘히 양각된 높은 보관을 쓰고, 보관 밑으로 짧고 단정한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으며, 귀 앞에 늘어진 머리카락이 귀의 중간을 가로 질러 뒤쪽으로 넘어가 꼬여서 어깨에서 둥글게 말린 후 어깨 방향으로 보발이 세 가닥 늘어져 있다. 착의법은 오른쪽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어 복부(腹部)에서 대의 자락과 접힌 부분이 표현되고,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내려온 옷자락 형태가 본존과 약간 차이가 있다. 오른손은 촉지인하고, 왼손은 바닥을 위하고 엄지와 중지를 붙인 반면, 반대쪽 보살상은 손의 위치가 반대로 놓여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석조삼존불좌상은 아직 복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성발원문이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2009년에 문화재청과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울산 지역 사찰의 성보문화재 조사를 계기로 본존 대좌 안쪽 묵서가 조사되었다. 묵서 내용은 "康熙十九年庚申閏八月日造」成安于迦氵旨山石南寺也」○○都畵員嘉善大夫 忠敏」木手 虛悟」倚戒」大○陳○立」供養主 應祥」別坐 ○○比丘」化主 慈運"이라고 한다.[5]

5)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II 자료집』, 문화재청 ·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p. 209.



도4. 석조보살좌상, 울주 석남사 강설당

2. 석남사 강설당 석조보살좌상

석남사 강설당에 봉안된 석조보살좌상은 높이가 60.8㎝이고, 무릎 폭이 46.5㎝인 중형보살상이다(도6). 보살상은 문양이 없는 높은 보관을 쓰고, 보관 밑으로 짧고 단정한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으며, 귀 앞에 늘어진 머리카락이 귀의 중간을 가로 질러 넘어가 뒤쪽 머리카락과 꼬여 어깨에서 둥글게 말린 후에 팔뚝까지 늘어져 있다.

보살상의 착의법은 앞서 살핀 대웅전 보살상과 달리 양 어깨에 천의를 걸친 천의식(天衣式)이다. 가슴에는 화형(花形) 목걸이를 걸고, 가슴까지 승각기를 올려 끈으로 묶어 매듭과 끝단이 보인다. 하반신에 늘어진 치마는 중앙에 대의자락이 수직으로 펼쳐지고 좌우로 옷자락이 펼쳐져 있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촉지인하고, 왼손은 바닥을 위로 엄지와 중지를 모으고 있다. 이 보살상은 대웅전에 봉안된 협시보살상과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신체 비율 등이 거의 같아 동일한 조각승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신흥사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신흥사 대웅전에 봉안된 석조삼존불좌상은 본존 높이가 87.5㎝이고,



도5.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북구 신흥사

무릎 폭이 75㎝인 조선후기 제작된 중형불상이다(도5). 본존과 보살은 전형적인 조선후기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을 따르고 있지만, 신체 비율, 인상, 착의법이 달라 제작 시기와 작가가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본존은 신체에 비하여 얼굴이 옆으로 퍼지고 각이 진 방형이고, 머리 정상부에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와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가 크게 새겨져 있다(도6). 오른손은 촉지인(觸地印)을, 왼손은 다리 위에 손가락을 편 상태로 가지런히 놓았다. 착의법은 바깥쪽에 걸친 대의(大衣) 안쪽에 편삼을 입어 변형우견편단으로 착용하고, 오른쪽 어깨에 한 가닥의 옷자락이 U자형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나머지 대의 자락은 세 가닥으로 접혀 팔꿈치와 복부(腹部)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 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에 늘어진 옷자락은 넓게 펼쳐지고, 좌우로 높낮이가 다른 주름이 접혀 있다. 소매 자락은 왼쪽 무릎에 짧게 늘어져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의 상단은 수평으로 처리되었다.



도6. 석조아미타불좌상

이와 달리 협시보살상은 높이가 62.8㎝와 65.8㎝로, 본존과 많이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 왼쪽 보살상은 보관 중앙에 화불(化佛)을 중심으로 화염문과 연화문이 꽉 차게 새겨져 있다(도7). 이 보살상은 보관에 화불이 있어 관음보살이라 본존이 아미타불상이며, 반대쪽 대세지보살상이 배치된 석조아마타삼존불좌상이다. 보살상은 보



도7. 석조관음보살좌상



도8. 석조대세지보살좌상

관을 쓴 얼굴이 신체에 비하여 크고, 이목구비의 처리와 착의법이 아미타불과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앞서 살핀 석남사 보살상과도 인상이나 착의법 등이 다르다. 관음보살은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고,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에 짧게 늘어진 것이나 하반신에 늘어진 옷자락이 단순하고 도식화 되어 있다. 수인은 대세지보살이 양 손은 배 위에서 선정인을 취하고(도8). 관음보살은 오른손을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왼손은 편 상태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4. 보덕사 석조보살반가상

보덕사 관음전 수미단 내 목조감실에 봉안된 석조보살상은 높이 51.7㎝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중소형 보살상이다(도9). 보살상은 바위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반가좌를 하고 있다. 보살상은 신체에 비하여 머리가 큰 편이고, 머리를 앞으로 약간 내밀고 있다.

머리에는 화문(花文)이 꽉 차게 조각된 높은 보관을 쓰고, 귀를 따라 수직으로 내려온 한 갈래 머리카락이 귀 중간을 지나서 귀 뒤쪽에 늘어진 머리카락과 자연스럽게 꼬여 어깨 위에서 원을 그리며 세 가닥이 늘어져 있다(도10). 타원형 얼굴에 가늘게 뜬 긴 눈, 곧게 뻗은 뾰족한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가지고 있다. 보살상을 만든 재료가 석재라 양 손은 무릎 위에 손가락을 편 상태로 붙이고 있다. 양 어깨에 걸친 천의는 어깨에서 펼쳐져 팔뚝 중간까지 늘어지고, 그 밑으로 흘러내린 천의자락이 팔과 반가좌한 다리 사이로 흘러내렸다. 보살상의 가슴에는 승각기를 대각선으로 접고 끈으로 묶어 명치 부분에 매듭이 보이고, 그 밑으로 두 가닥의 끈이 늘어져 있다. 하반신에 입은 치마 자락은 반가좌한 다리 위에 흘러내렸다.



도9. 석조보살반가상 정면, 울주 보덕사



도10. 석조보살반가상 측면

5. 백양사 석조삼존불좌상

백양사(白楊寺) 대웅전에는 새로 본존을 만들면서 원래 전각에 봉안되어 있던 협시보살만 봉안하고, 원 석조여래좌상은 응진전 주불로 모셔져 있다.

석조여래좌상은 높이가 71cm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중형 불상이다(도11). 여래상은 머리를 약간 숙여 내려다보는 자세로 결가부좌를 취하고 있다. 머리에는 큰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작은 반원형 중앙계주가 있고, 머리에 나발을 새겨 놓았다. 방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거의 일(一)자에 가깝고, 코는 삼각형으로 뻗어 있으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 오른손은 촉지인을 짓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



도11. 석조여래좌상, 중구 백양사

다. 바깥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덮어 팔꿈치를 지나 복부를 거쳐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편삼을 입지 않았지만 복부에서 접힌 표시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의 안쪽에 편삼을 걸치지 않고, 촉지인을 취한 불상은 조선후기 석가불이 대부분이지만 협시보살의 보관에 화불과 정병이 새겨져 있어 아미타불로 볼 수 있다. 결가부좌한 다리를 덮은 옷자락은 몇 가닥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는 상단이 연판형(蓮瓣形)으로 처리되었다.

협시보살은 본존보다 약간 크기가 작고, 얼굴 형태는 본존과 거의 유사하다. 높은 보관 상단 중앙에는 화불(化佛)과 정병(淨甁)이 새겨 관음과 대세지보살임을 알 수 있다(도12-13). 관음보살상은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리고, 왼손 바닥을 위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대세지보살상은 관음보살과 손의 위치가 반대이다. 착의법은 변형우견편단으로 대의 안쪽에 편삼을 걸치고 오른쪽 어깨에 가장 안쪽 대의자락이 U자형으로 늘어져 있다. 대세지보살의 밑면은 돌로 마감을 하고 중간에 팔각형을 반으로 자른 형태의 나무로 복장구를 막아 놓았다. 나무 판에 묵서로 '우(右)'를 적어 우협시 보살임을 알 수 있다(도14). 관음보살은 밑면에 나무로 마감을 하고 중앙에 원형의 복장구가 뚫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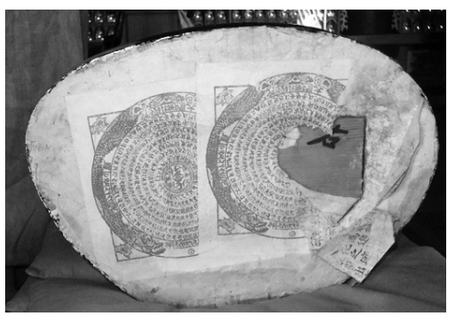
도12. 석조관음보살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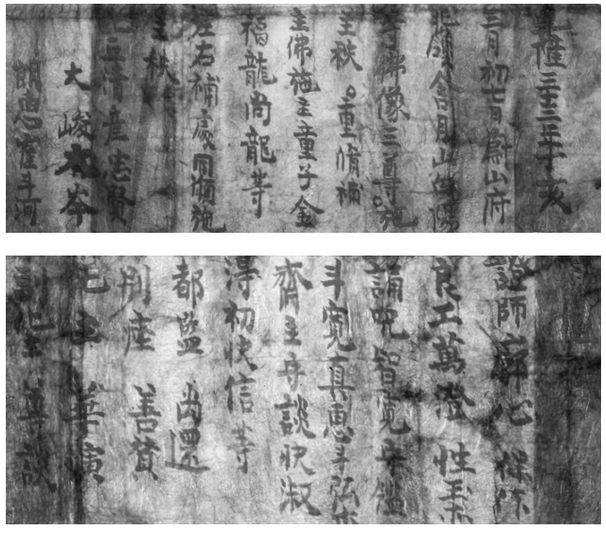
도13. 석조대세지보살좌상

있다.

이 삼존불상은 사중에 의하면 이전에 복장물을 도난당했지만. 새로 전각에 보살상을 모시는 과정에 내부에서 감지주서(紺紙朱書)인 중수문(가로 94㎝, 세로 11㎝)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乾隆三十二年丁亥」三月初七日蔚山府」北領含月山白楊」寺佛像三尊重修補施」主秩」主佛施主童子金」福龍 尙龍等」左右補處願施」主秩」比丘 淸彦 忠賢」大峻 大岑」朗惠 崔斗河」鄭重璉 兩主 …緣化秩」證師 廓心 保体」良工 萬澄 性玉



도14. 석조관음보살좌상 바닥



도15. 석조관음보살좌상 발견 중수발원문

等」誦呪 智寬 守鑑」斗寬 眞惠 斗弘 等」齋主 守談 快淑」得初 快信 等」都監 尙還」別座 善贊」化主 華演」副化主 尊談」本寺秩」執綱 尙還」三補 快日」首僧 就悅」直舍 旻淸」書記 有安」各房」存屹 快信 證行」持殿 華演」觀音主 福慈(필자 진하게, 도15)"이다.[6]

6. 동축사 석조여래좌상

동축사 대웅보전에 봉안된 석조여래좌상은 높이가 90㎝, 무릎 폭이 55㎝로, 약간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다(도16). 앞으로 숙인 머리는 나발(螺髮)이 촘촘하고, 육계(肉髻)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며, 머리 정상부에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와

6)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김희경 실장님이 제공한 중수원문 사진을 참조하였다.



도16. 석조여래좌상, 동구 동축사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가 있다. 방형의 각이진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고, 콧날이 뾰족한 원통형이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오른손은 촉지인(觸地印)을, 왼손은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가락을 안으로 모으고 있다. 바깥쪽에 걸친 대의(大衣)는 변형우견편단으로, 오른쪽 어깨에 대의 자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U자형을 이룬다. 나머지 대의 자락은 두 가닥으로 접혀 팔꿈치와 복부(腹部)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 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편겸과 접혀 있다. 하반신에 걸친 대의자락은 중앙에 옷자락이 수직으로 늘어지고, 좌우로 두세 겹으로 펼쳐져 있다. 소매 자락은 왼쪽 무릎을 연판형으로 덮고 있다. 가슴에 묶은 승각기는 상단이 5개의 앙련형(仰蓮形) 주름으로 접혀 있다.

7. 문수사 석조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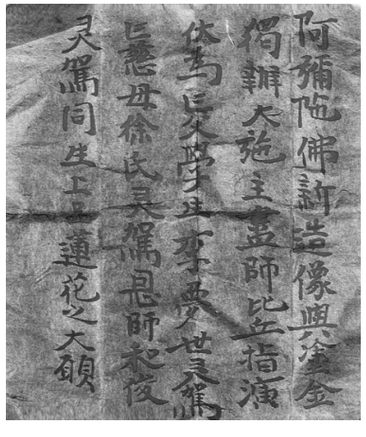
문수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던 석조여래좌상은 높이가 26.5㎝, 무릎 폭이 16.5㎝로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지만,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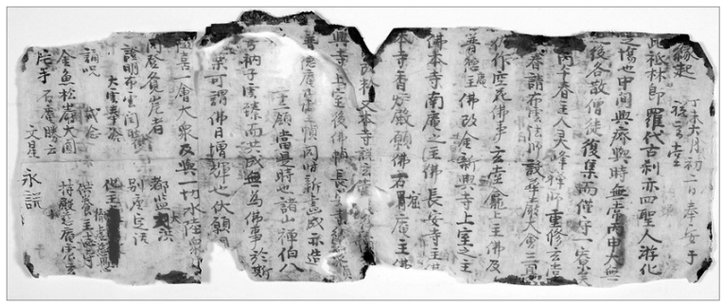
도17. 석조여래좌상, 울주 문수사

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도17). 석조여래좌상은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다. 머리는 나발(螺髮)이 촘촘하고, 머리 정상부에 원통형의 낮은 정상계주(頂上髻珠)와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앙계주(中間髻珠)가 있다. 방형의 각이진 얼굴에 반쯤 뜬 눈은 일(一)자형이고, 콧날이 뾰족한 원통형이다. 오른손은 촉지인(觸地印)을, 왼손은 다리 위에 손바닥을 위로 하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바깥쪽에 걸친 대의(大衣)와 편삼을 입은 변형편단우견으로, 오른쪽 어깨에 대의 자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U자형을 이루고, 나머지 대의 자락은 두 가닥으로 접혀 팔꿈치와 복부(腹部)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복부에서 대의와 편삼이 접힌 부분을 표현하였다. 다리 위에는 중앙에 완만하게 펼쳐진 옷주름을 중심으로 단순화 된 옷자락이 펼쳐져 있다. 소매 자락은 왼쪽 무릎에 짧게 늘어져 있고, 가슴을 덮은 승각기는 상단을 수평으로 처리하였다. 다른 불상보다 바닥면이 높게 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은 두 건으로,[7] 한 장에는 "願文阿彌陀佛新造像與塗金」獨辦大施主畵師比丘指演」伏爲亡父學生李夢世靈駕」亡慈母徐氏靈駕恩師和俊」靈駕同生上品蓮花之大願 文殊寺石造阿彌陀如來坐像"이라 적혀 있어 지연스님이 돌아가신 부모와 스승을 위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도18). 다른 발원문에는 "緣起」丁未六月初二日奉安于」祝玄堂」此祇林卽羅代古刹亦四聖人游化」之場也中間興廢與時無常丙申大無」之後各散僧徒復集而僅守一寮矣」去丙午春主人灵峰禪師重修玄堂」今春請布雲法師設華嚴大會三夏」仍作空花佛事玄堂龕上主佛及」普德庵主佛改金新興寺上室之主」佛本寺南庵之主佛長安寺主佛」本寺香爐殿願佛石窟庵主佛」○改粉又本寺說玄堂後○佛幀○」興寺上室後佛幀長安寺神衆幀」普德庵山靈幀同時新畵成亦造」…二十二領當是時也諸山禪伯八」○衲子雲臻而共成無爲佛事於斯」○葉可謂佛日增輝也伏願…」隨喜一會大衆



도18. 조성발원문 I



도19. 중수발원문

7) 최선일, 「울주 사찰 문헌자료의 조사연구」, 『울주학연구』 8, 울산학연구센터, 2013, pp. 308-309.

及與一切水陸衆生」同登覺岸者」證明布雲閏○」大雲奉冷」誦呪戒念」金魚松巖大圓」片手石庵勝云」文星」都監大洪」別座定話」化主徹虛慈愚」供養主志守」持殿慈庵震玄」永說"이라 적혀 있어 정미(丁未) 6월에 금어(金魚) 송암대원(松巖大圓), 편수(片手) 석암승운(石庵勝云), 문성(文星)이 불사(佛事)에 참여하였다(도19).[8]

8. 인성암 석조보살좌상



도20. 석조보살좌상, 울주 인성암

석조보살좌상은 높이가 35㎝이고, 무릎 폭이 22㎝인 소형보살상으로, 울산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8호로 지정되었지만,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도20). 보살상은 문양이 없는 높은 보관을 쓰고, 보관 밑으로 짧고 단정한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으며, 귀 앞에 늘어진 머리카락이 귀의 중간을 가로 질러 뒤쪽으로 넘어가 꼬여서 어깨에서 둥글게 말린 후에 세 가닥으로 늘어져 있다. 바깥쪽에 걸친 대의(大衣)와 편삼을 입은 변형우견편단으로, 오른쪽 어깨에 대의 자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V자형을 이루고, 앞서 살핀 문수사 석조보살좌상 등과 동일한 착의법을 하고 있다. 수인은 양 손은 편 상태로 무릎 아래로 내리고 있다.

9. 고헌사 석조나한상

도21. 석조나한상, 울주 고헌사

석조나한상의 높이는 31.5㎝, 무릎 폭이 21㎝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소형 불상이다(도21). 나한상은 앞으로 숙인 머리를 나발(螺髮)로 처리하고, 신체에 가사와 장삼을 걸쳤으며, 양손에 연화가지를 들고 있다. 고헌사 나한상 같이 머리를 나발로 처리한 예는 매우 희귀한 편이다.

8) 최선일, 「울주 사찰 문헌자료의 조사연구」, 『울주학연구』 8, 울산학연구센터, 2013, pp. 308-309.

Ⅲ. 울산의 조선후기 불교 조각의 제작 시기와 조각승 추론

이제까지 울산 사찰에 봉안된 조선후기 불상의 형태적 특징과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사찰에 남아있는 문헌과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기년명 불상을 비교하여 조성 시기와 작가를 추정해 보겠다.

1. 석남사 석조삼존불좌상과 석조보살좌상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석남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上北面)의 석남산(石南山)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통도사의 말사이다. 824년에 도의선사(道義禪師)가 개창하였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문헌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 사찰은 임진왜란 중에 파괴되어 1666년에 언양현감(彦陽縣監)의 시주로 탁령(卓靈), 자운(慈雲), 선철(善哲), 태주(泰珠)가 양쪽 요사를 건립하였다.[9] 또한 1674년에 선철이 대웅전을 중창하고, 자운과 홍의가 불사에 참여하였으며, 진혜(振慧), 쌍원(雙遠), 의익(義益), 성진(性眞), 승보(勝寶), 재오(再晤), 원감(圓鑑), 설안(雪眼), 민현(敏玄) 등이 개와(盖瓦)와 불상(佛像) 등을 마련하였다.[10]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가운데 본존 대좌에서 발견된 묵서는 1680년에 화주(化主) 자운(慈運)이 발원하여 화원 충민(忠敏), 허오(虛悟), 의계(倚戒) 등이 제작하였다. 화주로 참여한 자운(慈雲, 慈運)은 1674년에 탁령(卓靈) 등과 석남사 중창을 주도한 스님으로,[11] 호가 귀진당(歸眞堂)이다.[12] 아직 불상의 복장이 조사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주질이나 연화질을 알 수 없지만, 불상과 대좌를 같이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석남사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은 1680년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좌 묵서와 불상 조성발원문이 같이 조사된 유물은 1657년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13] 1684년 안동 봉황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14] 1706년 안성 칠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이 조사되었다.[15] 그러나 이 대좌를 만든 충민, 허오, 의계는 다른 불상을 만든 기록이 밝혀지지 않은 스님이다. 이들은 주로 직접 불상을 만든 장인으로 보이는데,[16] 충민은 1684년에 주성장 신의남(辛仪男)과 화각(畵刻) 연희(演熙)가 제작한 양산 내원사 안적암(安寂庵) 동종 제작에 화주로 참여한 스님으

9) 「石南寺事蹟」 와 「石南寺重牌記」(최선일, 「울주 사찰 문헌자료의 조사연구」, 『울주학연구』 8, 울산학연구센터, 2013, pp. 251-252) 참조.
10) 「石南寺事蹟」참조.
11) 「울주군의 불교문화재-사찰 · 탑 · 부도」, 『울주연구』 6, 울주문화원, 2009, pp. 33-34에 "숙종42년(1716) 추연이 지은 『석남사적지』에 의하면 석남사는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었는데 조선 선조 39년(1606년)에 언양현감이 옛 절이 너무 폐사가 되어 있음을 딱하게 여겨 탁영과 자운, 선철, 봉주에게 대웅전을 짓게 하고 원감, 설안, 민현에게 기와를 얹도록 했다고 되어 있다. 이 때 단청을 하고 불상을 조성하고 탱화도 만들었으며 종과 제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박에도 사찰이 중수된 것을 보면 조선 현종 15년(1674)에 선철대사가 중건하였다"라는 적혀 있지만, 대웅전 본존의 대좌에 쓰인 묵서는 1680년에 대좌 조성에 화주(化主) 자운(慈運)이 참여한 것을 보면 병오년을 1666년(현종7)으로 보아야 하고, 봉주는 태수(泰珠)를 잘못 읽은 것이다(「彦陽石南寺大雄殿佛糧獻土薦福錄」과 「石南寺事蹟」 참조)
12) 「彦陽石南寺大雄殿佛糧獻土薦福錄」 참조.
13) 최선일,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과 조각승 계찬」, 『미술사학연구』 285, 한국미술사학회, 2015.3, pp. 165-192.
14) 이민형, 「17세기 후반의 조각승 단응의 불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8, 한국미술사학회, 2013, pp. 163-194.
15) 최선일, 「안성 칠장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금문」, 『역사민속학』 29, 역사민속학회, 2009.3, pp. 185-208.
16)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화원이나 공장 등으로 적힌 스님들 중에는 불상을 직접 조각한 소목 이외에 옷칠과 개금 등 불상 제작에 관련된 일을 한 작가들이 같이 적혀 있다.



a. 승호, 석조석가불좌상,
1680년, 울주 석남사



b. 승호, 석조보살좌상,
1680년, 울주 석남사



c. 승호, 석조보살좌상,
울주 석남사



d. 승호, 석조석가불좌상,
1678년, 청도 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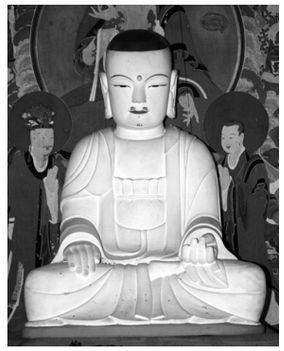
e. 승호, 석조보살좌상,
1678년, 청도 덕사



f. 승호, 석조지장보살좌상,
1678년, 청도 덕사



g. 승호, 석조여래좌상,
1684년, 기장 장안사



h. 승호, 석조지장보살좌상,
1684년, 기장 장안사

도22. 조각승 승호 관련 석조불상

로 추정된다.[17]

그리고 석남사 강설당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양식적으로 1680년에 제작된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과 인상이나 착의법 등이 동일하여 같은 계보의 조각승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크기와 착의법 등이 약간 차이가 난다.

이 석남사 대웅전과 강설당에 봉안된 석조불상은 17세기 영남에서 활동한 조각승 승호가 만든 불상과 양식적으로 유사하다(도22). 현재 조각승 승호가 수화승으로 만든 불상은 10건, 20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680년 석남사 석조삼존불좌상과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은 1678년 청도 덕사 석조석가삼존불좌상(도22d, 도22f)과 1684년 기장 장안사 영산전 석가삼존불좌상이다(도22g, 도22h). 이 불상들은 신체 비율, 각이 진 방형의 얼굴의 인상, 대의를 입은 착의법 등이 유사하다. 특

17) **康熙二十三年甲子**四月日梁山郡千聖山**安寂庵**中鐘鑄成○入百斤 施主秩 … 良工 通政 辛仪男 兩 畫刻 演溟 別座 六眼 **化主 忠敏比丘**(필자 진하게)

히, 오른쪽 어깨에 늘어진 대의자락이나 하반신에 늘어진 옷자락이 거의 동일하여 승호와 그 계보에 속한 조각승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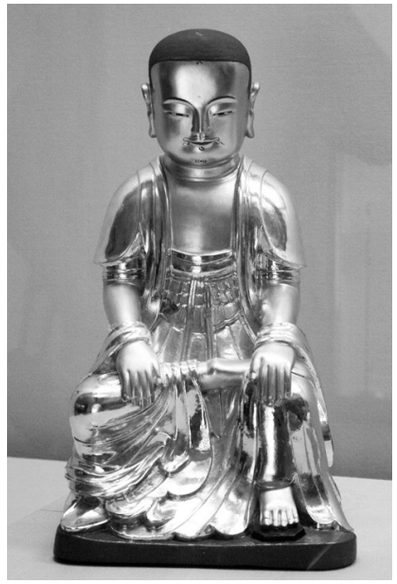
강선당 석조보살좌상은 대웅전 불상에 비하여 단순화 된 옷주름 표현이나 좁아진 어깨 표현 등에서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을 제작한 168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2. 신흥사 석조삼존불좌상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함월산(含月山)에 위치한 신흥사(新興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通度寺)의 말사이다. 이 사찰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울산왜성 1차 전투에 승병들이 주도적으로 참가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1646년에 의승군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좌병영 병마절도사 이급(李伋)의 후원으로 혜종(慧宗)이 중창하였다. 사찰에 남아있는 암막새 기와의 명문을 통하여 1653년 기와 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18] 그러나 1686년에 화재로 인해 소실된 후에 개축되었다. 대웅전에 봉안된 석조삼존불좌상은 각이 진 얼굴의 형태와 착의법 등에서 17세기 중반이나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삼존불좌상은 경주석으로 만든 석조불상으로, 본존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승호가 만든 불상보다 양식적으로 앞선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살상은 17세기 후반이나 18세기 전반의 양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본존과 협시보살의 제작 시기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일부 삼존불은 각각 수화승을 두고 만든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불상은 크기와 착의법 등이 거의 동일하다. 신흥사 삼존불좌상은 크기, 신체 비율, 착의법 등이 많이 달라 본존은 1660년대 중창과 더불어 만들어졌지만, 보살상은 대웅전 소실 이후에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마일이나 금문 등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18세기 전반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19]

3. 보덕사 석조보살반가상



도23. 석조지장보살반가상,
1738년 중수, 밀양 표충사

보덕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725-1번지 가지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불교태고종 사찰이다. 보덕사는 신라 고찰로 석남사의 암자인 동인암이 현 위치로 이전하여 신축한 후, 보덕사로 개칭한 비구니 사찰이다. 동인암의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 기간 중에 석남사와 함께 전소된 것을 1807년에 석봉대사(石峯大師)가 중수하였다.

보덕사 관음전 석조보살반가상은 경북 경주지역에서 산출되는 경주석이라 부르는 불석(佛石)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반가좌한 자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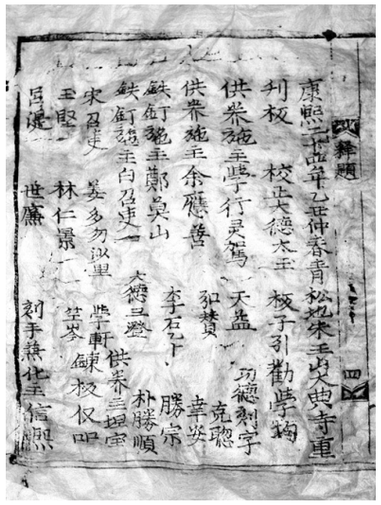
18)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銘文瓦(順治十年癸巳六月日)가 소장되어 있다.

19) 최선일, 앞의 논문(2009.3), pp. 185-208; 최선일,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과 조각승 마일」,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양사재, 2011, pp. 197-209.

착의법 등이 1738년에 중수한 밀양 표충사 유물관 소장 석조지장보살좌상(도23)이나 대구 남구 서사 석조관음보살상 등과 유사하여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승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반가좌한 불상 가운데 제작연대가 정확하게 밝혀진 기년명 반가상은 하나도 조사되지 않았다.

4. 백양사 석조삼존불좌상

백양사(白楊寺)는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9번지 함월산(含月山) 자락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의 말사이다.[20] 울산의 진산(鎭山)인 함월산에 자리한 백양사는 1678년에 연정(衍淨)이 중창되었다.[21]



도24. 『묘법연화경』,
1685년, 청송 대전사 간행



도25. 수연, 석조지장보살좌상
1703년, 청송 대전사

백양사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1767년에 함월산 백양사 불상 삼존을 중수하였다고 한다. 복장에서 같이 발견된 『묘법연화경』은 1685년에 청송 대전사에서 간행된 것이다(도24).[22] 흥미로운 사실은 1685년에 조각승 승호가 청송 대전사에서 석조삼존불좌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그 불상의 복장에서 동일한 판본의 경전이 조사되었다. 불상의 착의법이나 신체비육 등이 승호의 제자인 수연이 1703년에 청송 대전사에 조성한 석조지장보살좌상과 유사하다(도25).

백양사 불상 개금에 참여한 화원은 만징(萬澄)은 1755년에 경북 청도 운문사 비로전 삼신불도의 조성에 임한(任閑)의 보조화사로 참여한 불화승이다. 그리고 이 불상은 대웅전에 걸려 있는 1878년에 금어(金魚) 덕운영운(德雲永藝)이 그린 아미타삼존도(阿彌陀三尊圖) 화기를 통하여 불상의 중수 개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23]

5. 동축사 석조여래좌상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마골산(麻骨山) 동축사(東竺寺)는 대한불

20) 1780년에 편찬된 『울산읍지(蔚山邑誌)』에 '백양사(白陽寺)'라는 사찰의 이름이 나온다.

21) 白楊寺按或作白陽寺新羅敬順王六年癸巳白楊祖師創建朝鮮肅宗四年戊午衍淨大德重創英祖二十九年癸酉雪仁大師三創大正十二年癸亥雪樂和尙重修(權相老 편, 『韓國寺刹全書』, 1979). 그러나 김상영 等, 『전통사찰총서18-부산 · 울산 · 경남의 전통사찰 I 』, 사찰문화연구원, 2003, p. 238에는 연부(衍浮)로 오기하였다.

22) 울산시청 제공한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3) 光緖五年戊寅十一月日慶尙左道」蔚山府北維啣月山白楊寺後拂幀」與**三尊塗粉造成**仍安于本寺大雄」殿緣化秩」證明槃庵基洹」會主信峰道元」誦呪比丘寶欣」比丘妙洪」金魚德雲永藝」比丘正滓」比丘典昊」供司比丘就佑」都監槃庵基洹」別座兼化主弘信」淨桶童子有福」龍晩」負木許時宗」施主秩」本府使道癸酉生朴濟萬」坤命戊申生李氏」兩主」率子戊寅生道耶地」朴宗銀」朴度殷」化主淸信女一心華金氏」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當生極樂國同見無量壽皆共成佛」道之大願(필자 진하게)」

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通度寺)의 말사이다. 동축사 대웅전은 1664년과 1753년에 중수되었다. 대웅전에 봉안된 석조여래좌상은 신체비례와 착의법 등을 양식적인 특징이 알서 살핀 백양사 석조여래좌상과 유사하여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승호 계보 속하는 수연이나 법종 등의 조각승이 만들 것으로 추정된다.

6. 문수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문수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수산(文殊山) 자락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통도사의 말사이다. 문수산은 원래 영축산(靈鷲山)으로 불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고려와 조선 전기에 이 사찰의 연혁을 알 수 있는 문헌은 남아있지 않고, 1799년에 편찬된『범우고(梵宇攷)』에 약간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문수사 석조여래좌상은 내부에서 발견된 두 종의 발원문을 통하여 우선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을 불화승 지연이 부모(父母)와 은사(恩師)의 극락왕생을 위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불화승 지연(指演, 指涓 : -1775-1822-)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불화승이다.[24] 18세기 중반부터 불화승들은 불상의 개금과 중수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18세기 후반에 불상을 만들 예가 발견되어 문수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도 불화승 지연이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석조여래좌상은 현재 1787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다. 이는 연기문(緣起文)의 내용에 "丁未 6월"에 "金魚 松巖大圓, 片手石庵勝云, 文星"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25] 그런데 송암대원은 19세기 중반에 활동한 불화승이라 연기문에 언급된 정미년은 1847년으로 볼 수 있다.[26] 당시 불사는 대규모로 이루어져 설현당(說玄堂)과 보덕암 주불을 개금하고, 신흥사 상실(上室), 본사 남암, 장안사 주불과 본사 향로전(香爐殿) 원불(願佛), 석굴암 주불을 개분하였으며, 본사 설현당 후불도, 신흥사 상실 후불도, 장안사 신중도, 보덕암 산영도 등을 새롭게 조성하였다.[27]

7. 인성암

인성암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운산 자락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 14교구 범어사의 말사이다. 인성암은 신라시대에 지어진 사찰이라 전하지만 구체적인 문헌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석조보살좌상은 동축사 석조여래좌상과 같이 신체비율과 착의법 등이 단순하고 간략화 되어 18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24) 1775년에 수화승으로 경남 양산 통도사 명부전 시왕도(진광대왕)를, 1778년에 수화승 혜화와 경북 포항 보경사 삼장보살도를, 1792년에 수화승으로 양산 통도사 괘불도와 삼장도를, 수화승 희봉(琔峯)과 경북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감로도를, 1794년에 제석 · 천룡도(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를, 1797년에 수화승으로 안동 운대사 아미타후불도를, 1798년에 수화승 옥인과 양산 통도사 명부전 지장도를 그렸다. 수화승으로 1801년에 양산 통도사 백운암 지장도를, 1803년에 울산 울주 석남사 지장도를, 1804년에 대구 동화사 양진암 신중도를 조성하고, 1822년에 영천 수도사 괘불도를 개조하였다(안귀숙 · 최선일,『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회화』, 양사재, 2008, p. 486).

25) 緣起」丁未六月初二日奉安于」祝玄堂」此祇林卽羅代古刹亦四聖人游化」之場也中間興廢與時無常丙申大無」之後各散僧徒復集而僅守一寮矣」去丙午春主人灵峰禪師重修玄堂」今春請布雲法師設華嚴大會三夏」仍作空花佛事玄堂龕上主佛及」普德庵主佛改金新興寺上室之主」佛本寺南庵之主佛長安寺主佛」本寺香爐殿願佛石窟庵主佛」●改粉又本寺說玄堂後●佛幀●」興寺上室後佛幀長安寺神衆幀」普德庵山靈幀同時新畵成亦造」…二十二領當是時也諸山禪伯八」●衲子雲臻而共成無爲佛事於斯」●葉可謂佛日增輝也伏願…」隨喜一會大衆及與一切水陸衆生」同登覺岸者」證明布雲閑○」大雲奉冷」誦呪戒念」金魚松巖大圓」片手石庵勝云」文星」都監大洪」別座定話」化主徹虛慈愚」供養主志守」持殿慈庵震玄」永說

26) 1844년에 수화승으로 서울 봉은사 명부전 현왕도와 수화승 인원체정과 대웅전 신중도를 그리고, 1856년에 수화승 인원체정과 서울 도선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개금하였으며, 1863년에 수화승으로 강원 고성 화암사 지장시왕도를 제작하였다(안귀숙 · 최선일, 앞의 책, p. 86).

27) 1848년 문수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중수와 같이 불사한 내용이 발원문과 화기로 확인된 예는 없다.

8. 고헌사

고헌사 석조나한상은 이전 시기에 볼 수 없는 양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제작 시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신체 비율과 착의법 등을 보면 19세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울산 사찰에 봉안된 불상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해남사 석조지장보살좌상, 대덕사 석조여래좌상, 시적사 석조지장보살좌상,[28] 신흥사 관음보살좌상 등이 봉안되었 있는데, 그 가운데 신흥사 관음보살은 일본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작품이다.

28) 석조지장보살좌상의 대좌에는 "世尊應」化二千九」百四十四年」丁巳」玩虎」造成"이라는 명문이 남아있어 1917년에 완호가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을 만든 완호스님에 대해서는 문년순, 「佛母 梁玩虎의 生涯에 대한 再考」, 『항도부산』 26,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0, pp. 1-48을 참조할 만하다.

Ⅳ. 맺음말

이제까지 울산 지역 사찰 내에 봉안된 불상의 문헌이나 양식적인 특징을 통하여 조성 시기와 작가를 추정해 보았다.

울산의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은 첫째, 흔히 佛石, 滑石, 慶州石 등으로 부르는 石材로 만든 불상이다.[29] 이 재료는 석질이 곱고 연하여 조각과 운반이 쉬운 장점이 있는데,[30] 주로 중소형 불상으로 석재가 매장된 원적지(原籍地) 근처에서 제작되어 봉안 사찰로 이운(移運)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1] 이 불상은 정으로 두드릴 경우 깨지는 성질이 있어 조각도를 사용하던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이다.

둘째, 17세기 후반에 경주 기림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승호(勝浩)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만든 작품이 대부분이다. 조각승 승호는 수화승으로 1678년에 청도 덕사, 1681년 창원 성주사, 1684년에 기장 장안사, 1685년에 청송 대전사, 1688년에 군위 인각사 불상을 제작하였다. 그는 조각승 도우(道祐)의 제자이고, 수일(守一, 守日), 수연(守

29) 불석은 수분을 먹으면 연질이 되어 조각도로 새길 수 있다. 그러나 수분이 증발해 버리면 다른 석질만큼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30) 이희정,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삼세불좌상과 조선후기 석조불상」, 『문물연구』14,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8, p. 159; 황진연, 「경북 감포지역 제3기층에 산출되는 불석광물 및 점토광문의 산상 및 분포」, 『지질학회지』 24-2, 대한지질학회, 1988.6, pp. 105-112.

31) 경상북도 김천 직지사 천불전에 봉안된 석조불상은 1656년에 처음 조성되었다. 그후 178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에 걸쳐 259위의 불상을 경북 경주 祇林寺에서 조성하여 1월 24일에 점안하고, 26일에 가마[輦] 22대로 移運하여 2월 4일에 직지사에 도착하였다고 한다(千佛造成記 참조). 또한 전라남도 해남 대둔사 천불전에 봉안된 석조불상은 경주 石窟庵에서 여러 해 동안 조성하여 海路로 이송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한다(楓溪賢正,『日本飄海錄』,『韓國佛教全書』 10책(조선시대 4); 吳世昌 편/東洋古典學會 역, 『국역 槿域書畵徵』下, 시공사, 1998, pp. 810-811; 정성일, 「해남 대둔사 승려의 일본 표착과 체험(1817-1818)」, 『韓日關係史硏究』 32, 한일관계사연구회, 2009, pp. 133-182).

衍), 법종(法宗)의 스승이다. 울산 사찰에 봉안된 불상의 제작 시기는 17세기 중반에 신흥사 석조여래좌상, 17세기 후반에 석남사 석조삼존불좌상과 석조보살좌상과 보덕사 석조보살반가상, 18세기 전반에 백양사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동축사 석조여래좌상 및 인성암 석조보살좌상, 18세기 후반에 문수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19세기에 고헌사 석조나한상 순이다.

셋째, 불상의 제작 시기를 근거로 이 지역 사찰의 중건과 중수 시기는 17세기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17세기 후반에 정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변의 양산이나 경주보다 사찰의 정비가 한 세대 정도 늦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 지역에 남아있는 불상은 체계적인 복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개별 불상의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추정하여 17-18세기에 제작되었음을 밝힌 것은 작은 성과일 것이다. 이후 시 · 군에서 정식 조사를 통하여 조성 발원문이 조사되어 문화재적 가치가 밝혀질 것이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權相老 편, 「韓國寺刹全書」, 1979

「石南寺事蹟」

「彦陽石南寺大雄殿佛糧獻土薦福錄」

「石南寺重刱記」

吳世昌 편/ 東洋古典學會 역, 『국역 槿域書畵徵』下, 시공사, 1998.

楓溪賢正,『日本飄海錄』(『韓國佛敎全書』 10책(조선시대 4).

보고서와 도록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II 자료집』, 문화재청 ·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단행본

김상영 等, 『전통사찰총서18-부산 · 울산 · 경남의 전통사찰 I 』, 사찰문화연구원, 2003.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안귀숙 · 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회화』, 양사재, 2008.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교조각 연구』, 세종, 2013

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조소』, 양사재, 2007.

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논문

문년순, 「佛母 梁玩虎의 生涯에 대한 再考」, 『항도부산』 26,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0, pp. 1-48.

송은석,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2.

「울주군의 불교문화재-사찰·탑·부도」, 『울주연구』 6, 울주문화원, 2009.

이민형, 「17세기 후반의 조각승 단응의 불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8, 한국미술사학회, 2013, pp. 163-194.

이희정, 「朝鮮後期 慶尙道地域 彫刻僧과 佛像」,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8

이희정,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삼세불좌상과 조선후기 석조불상」, 『문물연구』 14,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8, pp. 137-163.

정성일, 「해남 대둔사 승려의 일본 표착과 체험(1817-1818)」, 『韓日關係史硏究』 32, 한일관계사연구회, 2009, pp. 133-182.
최선일,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 14, 2000, pp.35-62.
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8.
최선일, 「안성 칠장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금문」, 『역사민속학』 29, 역사민속학회, 2009.3, pp. 185-208.
최선일,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과 조각승 마일」,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양사재, 2011, pp. 197-209.
최선일, 「울산 사찰 문헌자료의 조사연구」, 『울주학연구』 6, 울산학연구센터, 2011, pp. 141-307.
최선일, 「울주 사찰 문헌자료의 조사연구」, 『울주학연구』 8, 울산학연구센터, 2013, pp. 225-381.
최선일,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과 조각승 계찬」, 『미술사학연구』 285, 한국미술사학회, 2015.3, pp. 165-192.
황진연, 「경북 감포지역 제3기층에 산출되는 불석광물 및 점토광문의 산상 및 분포」, 『지질학회지』 24-2, 대한지질학회, 1988.6, pp. 105-112.

울산학연구 제10호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황시영

발행처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TEL.052-283-7715 FAX.052-256-7227
www.udi.re.kr

인쇄처
협진
TEL.052-256-5501 FAX.052-256-5503

ISSN
1975-9355

© 울산학 연구사업은 울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였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UDI 울산학연구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TEL.052-283-7715 FAX.052-289-7227
www.udi.re.kr